

일본의 인권조례도시를 가다

▶ 인권개선 팔 걷은 지자체들

인구 80만명 사카이市 전담 공무원만 50여명

일본이 '인권 선진지'로 도약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 등 '인권 선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 수준이 취약했던 일본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권 개선에 팔을 걷어 부쳤다. 특히 1980년대 오사카를 중심으로 비롯된 '인권 조례' 제정

움직임은 일본의 인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주된 계가 됐다. 현재 일본의 지자체 1천835곳 가운데 인권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 중인 곳은 399곳(21.7%)에 달한다. 지자체 다섯 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은 '인권 조례'를 토대로 인권 관련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 5곳중 1곳 이상 시행...인력·예산 투입 활발
조례 제정 앞장선 오사카·미에현 등 인권중심지 부상

일본 '인권 조례'의 견인차 역할은 오사카(大阪府) 등 각 지자체가 담당했다. 오랜 군국주의와 보수정권 집권 등의 영향으로 인권 개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75년 발생한 '부락지명총합' 사건은 일본의 인권 개선 움직임에 기폭제가 됐다. '부락총합'은 일본 내 5천300여곳의 피차별 부락(部落)의 이름과 위치, 직업 등을 담은 책으로, 일본 내 신분 차별의 주된 자료로 활용됐다.

이 책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지자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1985년에는 '부락해방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난 데 이어 1993년 6월에는 도쿠시마(徳島)현 아난(阿南)시에서 '부락차별철폐·인권옹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후 1993년 9월 오사카부 이즈미시노(泉佐野)시의 '부락차별과 모든 차별을 없

에는 조례'가 제정돼 오사카 일대에서 인권 개선에 대한 여분이 높아졌다. 또 1996년 8월 돗토리(鳥取)현이 전국 현(縣) 가운데 최초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자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인권 조례' 제정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미에(三重)현(1997년), 오사카(大阪)부(1998년), 오이타(大分)현(2008년) 등에서 잇따라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특히 일본 지자체 중 오사카부와 미에현 등은 인권 조례의 선진지로 꼽힌다. 오사카 지역은 미에현과 함께 일본 인권운동의 주축인 '부락해방운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했다.

오사카는 산하 지자체별로 다양한 인권 개선 시스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부(部) 산하 인권박물관 운영 등을 통해 일본의 인권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사카부에 속한 사카이시(堺市)는 '인권'을 도시 특색으로 육성할 만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카이시는 이미 1980년 '인권 옹호 도시'를 선언한 데 이어 2007년부터는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가꾸기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인구 83만명의 이 도시는 시 산하 공무원 6천명 가운데 시청 인권부 등 인권 관련 전담 인력이 50여명에 이른다. 또 '헤노마쓰 인권역사관'과 '평화와 인권 자료관' 등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미에현도 일본 인권의 선진지 역할을 하고 있다. 미에현은 지난 1990년 '인권 선언'을 한 데 이어 1997년에는 전국 47개 현(縣) 중 최초로 '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로 12년째 시행 중인 '미에 인권 조례'는 지역민들의 인권 개선과 인권 교육 등을 총괄했다.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통해 '무의식적'인 차별까지도 철저히 배제하려는 노력도 눈길을 끈다.

미에현은 현(縣)의 문화부에 인권·동화부를 설치해 67명의 인권 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 인권·동화부의 총 예산은 1년에 15억엔(한화 195억5천만원)으로, 각종 인권 관련 사업과 미에현 인권센터 운영 등에 쓰인다.

미에현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산하 지자체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현재 미에현에 속한 지자체 26곳 중 21곳이 '인권 조례'를 시행 중이다. 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5개 지자체에도 인권 전문 상담 창구가 상시 운영되고 있다.

도시하루 야스다(61) 미에현 부지사는 "미에현의 '인권 조례'는 인권의 모든 본바탕을 담고 있다"며 "전국의 현 가운데 최초의 시도라는 자부심을 토대로 인권 개선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사카부 사카이시가 운영 중인 '인권후라이센터'를 찾은 관광객들이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 곳은 일본 인권운동의 도화선이 된 부락차별 및 재일한국인 차별문제 등 일본의 인권 유린 상황을 대형 사진과 도표 등을 통해 연대별로 소개하고 있다.

“활발한 조례 제정, 척박한 ‘인권 토양’ 희망의 싹”

야마구찌 노리코 사카이시 의원

“인권 조례에 따른 변화의 움직임을 계기로 일본의 인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야마구찌 노리코 사카이시 의원은 “인권이 없는 삶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며 “여성들과 장애인, 외국인 등의 인권 개선과 사회진출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척박한 일본 인권의 ‘토양’에 희망의 싹을 심고 있다”고 밝혔다.

야마구찌씨는 “일본은 지난 1980년 이후 부락민으로 대표되는 신분차별 철폐는 물론, 여성과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개선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사카이시가 ‘인권 조례’를 제정한 뒤부터 행정부와 시의회가 인권 개선에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는 만큼 조만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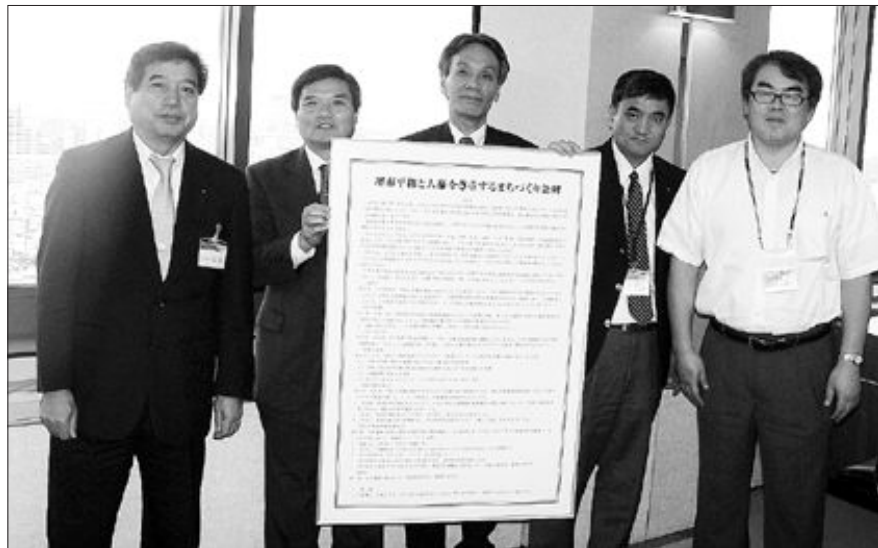
그는 “사카이시 등 오사카 지역의 인권 운동이

활발한 것은 그만큼 역사적으로 인권 유린이 상대적으로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카이시의 경우 80여만명의 인구 중 피차별 ‘부락민’이 4천여명에 달한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신분차별의 잔재가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성인권 운동과 관련, “여성들의 인권만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인권 조례’ 등을 바탕으로 여성인권 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힘’을 키워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일본의 각 지자체들이 ‘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로는 잘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며 “가부장적인 사회의식에 따라 남성들의 6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여성들의 취업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일본 여성운동의 가장 큰 현안이자 과제”라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카이시 인권기획과 직원들이 지난 2007년 제정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가꾸기 조례'를 가리키며 시의 인권 조례 제정 과정과 조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영 / 화 / 안 / 내

영화를 아끼지 마세요

메가박스

Table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for Megabox: 1관 내사랑 내결에 (12세) 최고급관, 2관 써로게이트 (15세), 3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4관 페인 (12세), 5관 내사랑 내결에 (12세), 6관 애자 (15세), 7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세), 8관 게이머 (18세), 9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 어프윙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련면역국사거리 ☎에미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Table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for Columbus Cinema: 1관 국가대표 (12세), 2관 애자 (15세) /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3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4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5관 페인 (12세), 6관 게이머 (18세), 7관 내사랑 내결에 (12세), 8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세), 9관 써로게이트 (15세), 10관 내사랑 내결에 (12세)

힐트시탈 영화시탈 • 메: www.joycn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매남점 (무역화관옆편)



1588-7941 상무병원 옆 행영 -(1번 or 2번) → 0번

하미시네마

Table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for Hamichinema: 1관 애자 (15세), 2관 헤운대 (12세), 3관 국가대표 (12세), 4관 페인 (12세), 5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6관 게이머 (18세), 7관 내사랑 내결에 (12세), 8관 내사랑 내결에 (12세), 9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세), 10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65 매일심야 • 이동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해미 수원점 289-5757 • 해미 불란점 262-0925 • 해미 골프점 251-5080 • 해미 당구점



고려시탈 고려극장 •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대무문 하미스포텍스 ☎ 267-7777

씨너스전대

Table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for Cinears: 1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2관 써로게이트 (15세), 3관 내사랑 내결에 (12세), 4관 애자 (15세) /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5관 페인 (12세) /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세), 6관 게이머 (18세), 7관 내사랑 내결에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독자 사우나(오전6시~오후11시)



색깔있는 영화선배 •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Table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for Jeil Cinema: 1관 내사랑 내결에 (12세), 2관 게이머 (18세), 3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세), 4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5관 페인 (12세), 6관 국가대표 (12세) / 애자 (15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무소 옆 호남타워주변) - 단, 입장권 구매 고액에 한함



세운은 기쁨 • www.primuscinema.com / www.jeilcinema.co.kr • 총상표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